

석했다.

그밖에 전문건설업은 '96년 1월부터 외국 업체의 진출이 허용되고, 지사설립을 통한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'96년1월부터, 전문건설업의 경우 '98년1월부터 허용된다. 건축설계 및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도 '96년부터 개방된다.

외국인의 국내 감리 활동을 현재 건설기술관리법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UR 서비스 협상에서 별도로 양허하지 않았으며, 기타 엔지니어링 활동은 외자도입법에서 허용하는 한 과기처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■ '94년 건설업 개방업종

업종명	개방시기	현행
①건축물 해체 공사업 ②토공사 및 정지 공사업 ③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 공사업(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 등) ④건축물 자영 건설업 ⑤주택 도급 건설업 ⑥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⑦공업용 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⑧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(여객 및 화물터미널 건설 등) ⑨도로 건설 및 포장공사업 ⑩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⑪수로,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⑫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 건설업(스타디움 공사 등)	'94년1월1일 합작의무 폐지	국내에서 동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합작하는 경우만 허용

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오는 3월께부터

①업무용 토지

②임직원용 택지
③부대시설부지 등
외국인의 토지 취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

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

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선진국의 60~70%의 수준

건설시장의 국제화·개방화로 나아갈 경우 국내 건설업체가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거나 해외시장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.

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노동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분야의 경우 국가간 인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인력을 활용할 수

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 등에 소요되는 첨단 전문 건설업은 상당 부분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.

특히 건설업의 경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자금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돼 자본력

이 약한 우리 업계는 앞으로 닥칠 사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싼 금리와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을 무기로한 외국 업체는 돈이 많이 들어 국내 업체가 선뜻 대들지 못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공사분야까지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는 자칫 하청업체로 전락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.

개방후 가장 취약한 분야는 사회간접시설중 민자유치 프로젝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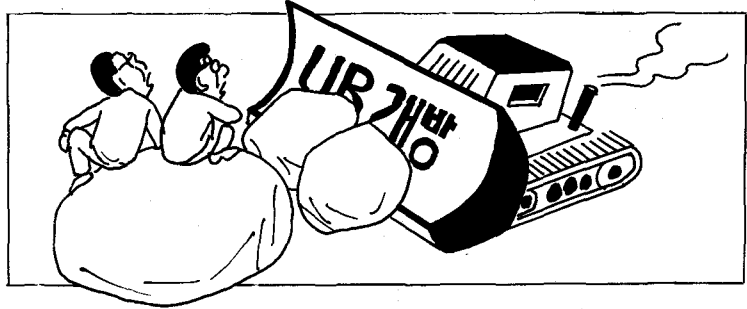
정부는 예산이 없어 대규모 사업은 모두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은행금리가 10~13%대인 우리로서는 5~6%선인 외국과의 금융경쟁에서 이미 뒤지고 들어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.

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분야의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 유입 때는 기술 및 자재사양은 자국의 최첨단 공법 등으로 설계하고 그들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토록 할 경우 우리는 고수익성 분야는 다 외국에 양보하고 몸으로 때우는 단순시공분야만 떠맡는 허망한 꼴을 당할 우려가 농후한 실정이다.

비가격 및 가격경쟁력을 감안한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선진국의 60~70% 수준.

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수주 패턴이싼 공사비를 제시해 공사를 따내는 것보다 높은 품질이나 기술을 위주로 하는 비가격경쟁력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업계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?

해의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이 분석한 국내 건설업계의 국제 경쟁력 비교지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.



[1] 가격 경쟁력

주요 선진국 수준을 100%로 할 때, 임금 생산성 자재 시설재 및 장비부문에서는 개도국이 40~50%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80% 수준이나, 금리 및 자금조달능력은 선진국의 20% 수준에 불과해 개도국의 10% 수준과 엇비슷한 정도로 취약한 부문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2] 기술 경쟁력

㉠고급기술 : 한국이 65~80% 수준, 개도국은 30~40% 수준.

㉡첨단기술 : 한국이 20~35% 수준, 개도국이 5~15% 수준.

㉢프로젝트 %여별 시공기술

종 목	%
도로 및 포장	90이상
댐·터널·철도·건축물·수력 및 화력 발전시설·화학공업 플랜트	80이상
교량·해안시설·폐수 및 폐기물·처리시설·건축설비·원전시설	80이하

엔지니어링 기술은 시공분야보다 국제 경쟁력이 현격히 떨

어져 건축물과 도로 분야만이 70~80%로 나타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이며, 교량과 댐 등 대부분이 60~70%이며, 특히 화학공업 플랜트는 최저치인 50~60%로 조사되었다.

㉣견적기술 : 최근 국내 업체의 수준이 컴퓨터에 의한 표준화 관리와 첨단 견적기법 등 첨단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단순기술 분야는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고급기술 분야는 80% 수준, 첨단기술 분야는 25% 수준에 불과하다.

[3] 경영관리기법과 시공관리기법

선진국의 80% 수준으로 개도국의 30%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정보수집이나 계약 클레임 처리 능력은 선진국의 50~60% 수준(개도국은 20% 수준)으로 보다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됐다.

공사 경험에서는 선진국의 90%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도국의 30%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.